

현장 작업개선의 4단계

제조현장에서의 개선은 제품의 원가 및 작업표준시간을 단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업체에서는 지속적인 작업개선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해 보자.

제 1단계 : 작업 분해

현재방법 그대로, 작업의 모든 세목을 기록한다.

제 2단계 : 세목마다 자문(5W1H)

1. 왜 그것은 필요한가?
2. 그 목적은 무엇인가?
3.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가?
4.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?
5. 누가 가장 적격인가?
6. 어떤 방법이 좋은가?

(대상 부문별 자문)

<재료>

- 보다 좋고 값싸고 얻기 쉬운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까?
- 이 작업에서 생기는 폐품을 다른 생산에 활용 할수 있을까?
- 불량품이나 폐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없을까?
- 재료의 가격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?

<배치>

- 되돌림의 횟수는 최소한인가?

- 취급횟수와 이동거리는 최소한인가?
-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전부 사용하고 있는가?
- 통로의 폭은 충분한가?

<기계>

- 최대한으로 가동하고 있는가?
- 가장 좋은 운반상태에 있는가?
-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?
- 작업에 가장 적합한 기계가 사용되고 있는가?
- 기계나 노동자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?

<동작>

- 모든 물건은 적당한 동작범위 내에 있는가?
- 중력이용의 보급장치나 낙하송출장치는 쓸 수 있을까?
- 양손은 유효하게 쓰여지고 있는가?
- 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제거되고 있는가?

<설비와 공구>

- 적당한 설비와 공구를 이용할 수 없을까?
- 작업자들이 그것들을 갖고 있는가?

- 게이지, 치구, 장치는 어떠한가?
- 설비, 공구는 유효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?

<안전>

- 작업은 편하고도 안전한가?
- 작업원은 안전수칙과 화재예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?
- 바른 안전장치를 쓰고 있는가?
- 사고는 인력, 기계, 재료의 낭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.

<설계>

- 품질이 설계나 시방서의 변경에 따라서 개량되고 있는가?
- 약간의 설계변경으로 재료의 생산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가?
- 공차나 마무리 작업이 필요한가?

<정리정돈>

- 작업장과 재료장의 정리정돈이 잘되고 있는가?
- 불량품 두는 곳을 작업자, 기계, 작업대 등이 작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을까?
- 필요치 않는 물건은 전부 치워놓고 있는가?
- 필요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여져 있는가?
- 정돈이 잘되어 있는 직장은 지연, 불량품, 사고가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.

제 3단계 : 새로운 방법전개

- 불필요한 세목을 제거한다.
- 될 수 있는 대로 세목을 결합한다.
- 세목을 보다 좋은 순서로 재배열한다.

- 필요한 세목을 간소화한다.

제 4단계 : 새로운 방법실시

- 새로운 방법을 상사에게 납득시킨다.
- 새로운 방법을 부하에게 납득시킨다.
- 안전, 품질, 생산량, 원가의 관계자에게 최후의 승인을 얻는다.
- 새로운 방법을 실제작업에 옮긴다.
(다른 개선방법이 나올때까지 사용한다)
- 다른 사람의 공적을 인정한다.

